

‘전국최강’ 광주 동신고 청구부

전국대회 5관왕에 도전
한다! 스포츠 관계자나 스포츠를
모르는 문외한에게 물어도 “그게 가능 한
가?”라는 물음표를 달 정도로 불가능에 가까
운 위엄이다. 바로 이러한 불가능에 도전하는 이
들이 있다. 주인공은 광주동신고(교장 임화인) 정
구부. 이들은 지난 3월 제27회 협회장기 전국정구
대회 단체우승을 시작으로 4월 제11회 장원배
전국남녀 중·고교전국정구대회 단체우승, 7
월 제44회 대통령기 전국정구대회 단
체우승을 해냈다.



전국대회 5관왕에 도전하는 동신고 선수들이 ‘밸리 스트로크’ 연습을 하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스포츠 포커스

또 8월 제42회 전국남녀중·고교정구대회 단체우승까지 4관왕의 금자탑을 세웠고, 오는 10월 전국체전에서 마지막 5관왕에 등극할 준비를 하고 있다.

19~25일까지 열리는 추계대회에 출전해 우승을 한다면 좀 더 일찍 5관왕에 등극할 수 있지만 다른 팀들이 “제발 이번 대회만은 빼놓으라”는 애원을 무시할 수 없어 시즌을 정리하는 전국체전에서 5관왕에 등극하기로 일정을 조금 조정했다.

물론 ‘공은 동글이’는 스포츠 경기처럼 영원한 약자도 없는 스포츠 세계에서 4관왕의 실력을 갖췄다고 반드시 5관왕을 이루리라는 보장은 없다.

개다가 10월에 열리는 전국체전은 모든 팀들이 사활을 걸고 덤비는데다 동신고처럼 단일 학교가 아닌 연합팀이 출전하기 때문에 우승 장담은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동신고 선수들은 4관왕에 오른 챔프의 자신감이 넘쳐난다.

지난 18일 오후 동신고 정구코트.

9명의 챔프들이 5관왕의 위업을 위해 힘방울을 흘리고 있다. 4관왕에 올라 훈련이 조금은 느슨해질 법도 하지만 5관왕을 향한 이들의 훈련스케줄은 평소보다 훨씬 강도를 높인 상태다.

오전 8시30분부터 30분간 러닝과 체조등으로 컨디션을 조절한 후 12시까지 전술훈련을 하고,

“우리는 챔프” 5관왕 노린다

올 전국대회 4관왕... 비인기 설움 훌~훌

대회마다 우승 0순위... “라이벌은 우리 자신”

오후 2시부터 6시30분까지 개인 기술훈련과 체력보강훈련을 실시한다.

“4관왕에
올랐고,
진학문
제도 해
걸렸
는데 이

제 조금 쉬어도
되거나”하는 기자의
농담에 “전국체전에서 우승해 반드시 5관왕의
금자탑을 후배들에게 물려주겠다”고 입을 모은다.

동신고의 전국최강 신화는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됐다. 2003년 국가대표 출신 구자연 감독(55)이 부임한 후 8년여 동안 상위권에 들지 못하던 정구팀이 기본전력을 갖추게 됐다. 그리고 2004년 현재 3학년들인 황주연, 김선근, 박상민, 김동훈이 입학하면서 동신고의 정구계 태풍이 시작됐다.

이들 4인방은 금호중 시절 이미 실력을 겸증받은 기대주들로 구 감독을 만나 체력과 균형을 갖춘 선수로 거듭나게 된다. 여기에 역시 국가대표 출신인 손영호(39) 코치가 가세해 동신고 정구부는 단숨에 단체 2관왕에 올라 정구계의 강자로 등장하더니 2005년에는 단체 3관왕에 올라 정구

명문으로 자리매김했다.

4관왕 동신고 정구부의 최대 강점은 팀워크와 지칠줄 모르는 무쇠 체력, 고교선수들의 실력차이는 백지장 한 장 차이. 따라서 체력과 단결된 힘이 승패를 좌우한다.

선수들도 한결같이 동신고의 장점은 ‘팀워크’이라고 내세운다. 주장 황주연(3년)은 “우리팀은 플레이 할 때 서로를 믿고 뛰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둔다”며 “서로에 대한 믿음이 곧 4관왕의 원동력이다”고 말했다.

서권(1년)도 “저희팀은 선배님들 배려로 후배들이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운동에 전념할 수 있어 좋다”며 “실력이 하루 하루 느는 것을 느낀다”고 웃었다.

이같은 팀워크의 밑바탕은 감독, 코치 모두 동신고 졸업생들이라는 인연 때문. 구 감독이 3회 졸업생, 손 코치는 18회 졸업생이다.

하늘같은 선배님이 감독과 코치를 맡다 보니 선수들은 코칭스태미 ‘검은 것도 하얗다’고 하면서 믿어야 될 형국. 거기에 국가대표 출신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하기 때문에 동



신고 정구부는 3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전국최강이라는 전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여기에도 학부모들의 현신적인 뒷받침도 단단히 한 몫했다. 이날도 전지훈련을 떠나기 위한 선수들 수송을 위해 윤형욱(2년)군의 아버지 윤형관(48)씨가 연습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고교 선·후배들이 뭉쳐 이뤄낸 ‘전국최강 동신고 정구부’는 오는 10월 5관왕의 풍성한 가을걷이를 위해 또 다시 신발끈을 고쳐 펴다.

영원한 라이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김선근(3년)군의 말처럼 최종 목표인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는 이들의 꿈이 가을 하늘처럼 푸르기만 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왼쪽아래부터 차대근, 고영빈,
서권, 성락호, 윤형욱, 이요한, 윗
줄 왼쪽부터 임화인 교장, 손영호
코치, 황주연, 박상민, 김선근, 김동
훈, 구자연 감독.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날짜	경기	상대	결과
2005. 10. 10	제44회 대통령기 전국정구대회 단체 우승	전국 100개 팀	우승
2005. 10. 23	제27회 협회장기 전국정구대회 단체 우승	전국 100개 팀	우승
2006. 4. 1	제11회 장원배 전국남녀 중·고교전국정구대회 단체 우승	전국 100개 팀	우승
2006. 7. 1	제42회 전국남녀중·고교정구대회 단체 우승	전국 100개 팀	우승